

북디자인 인력배출 어떻게 이뤄지나

정규대학서 강좌 개설해 교육과정 확립시켜야

책에 실린 내용과 겉모양새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독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극대화시키는 '북디자인'의 영역은 이제 출판에 있어 부동의 자리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 출판인들의 한결같은 시각이다. 종전과는 달리 이같은 생각이 보편화된 것은, 책이 갖는 정보나 지식의 전달매체로서의 기능이 미디어에 의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따라서 읽는 책에서 보는 책으로의 변화과정을 겪으면서 더욱 가속되었다고 봐야 한다. "모양이야 어떻든 간에 내용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이전의 사고방식이 깨어지고, "내용의 충실함을 외형에 반영해 독자들로 하여금 그 가치를 빨리 깨닫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출판인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북디자인이 기반을 다지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80년대 초반 출판보다 필요성이 더 시급했던 잡지계에서부터 시도된 북디자인이 제 자리에 들어선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가 전혀 없진 않다. 이름깨나 알려진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표절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북디자인은 '책표지 제작'이라는 오해 등등이 그런 문제들로 지적된다. 물론 이런 문제에 대한 분석은 여러 방법에 의해 가능하다. 그 가운데 "지난 10년간의 급성장에 비해 별 진전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북디자인 교육의 실상을 살펴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디자인학과·전문학원 통해 배출돼

북디자인의 인력 배출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북디자인을 하는 경우, 둘째 편집·디자인 학원을 거쳐 전문가의 길로 접어드는 사례, 셋째 출판사나 기획실에서 근무하다가 본격적으로 나서서 길 등이 그것이다.

출판에 직·간접으로 관여했거나 그림솜씨가 있던 문인들의 '장정' 수준에서 벗어나 전공자들의 참여가 늘면서 북디자인이 본격화되었고, 출판계의 인식변화로 인해 수요가 증가되면서, 지방생들 역시 급증했다. 칼라 TV의 등장으로 맞이한 디자인 붐으로 대학마다 디자인 관련 학과가 개설된 것 또한 북디자인의 배출을 가능케 한 원인 중의 하나다. 응용미술에서 시각·산업·광고·공업·포장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이들 가운데서 북디자인은 배출된다. 10여개의 4년제 대학 디자인학과와 교과과정에서 이들이 북디자인과 관련돼 배우는 과목은 대개 세가지. 타이포 그래픽, 에디토리얼 디자인, 프린팅

책에 담긴 저자의 메시지를

외형의 미로 증폭시켜 독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북디자인. 대학의 디자인학과

출판학과를 거치거나, 편집·디자인

학원을 통해 이들 북디자인의

대부분이 배출되는데, 전문성이 다소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 교육을 담당할

재교육기관 설립이 강조된다.

프로세스가 그것인데, 과목명과는 달리 교육내용은 북디자인과 밀착된 것만은 아니란다. 디자인에 대한 전체적 안목을 가르친다는 교육목표에 따라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는 얘기가.

서울여대 시각디자인과 김진평교수는 "북디자인의 기초과목이 되는 타이포그래피가 제대로 교육되지 않을 뿐더러 교수진의 취향에 따라 비중이 달라 실효가 적다"고 지적한다. 덧붙여 "북디자인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면 최소한 활자체의 성격과 역사, 구조 등을 선택해 재구성하는 과목인 타이포그래피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러스트레이션과 사진 못지 않게 중요한 활자에 대한 무관심이 대학교육에서부터 연유한다는 이같은 지적은 우리 북디자인계의 활자에 대한 무시경향에 비춰 설득력 있게 들린다. 대학교육에서 기초과목의 충분한 훈련이 선행되지 않아 국내 북디자인의 독창성이 결여된다는 우려의 소리도 적지 않다.

한편 전문대를 통한 인력배출도 북디자인 양성의 큰 몫을 차지한다. 전문대치고 디자인 학과가 개설되지 않은 곳이 없고, 출판학과가 개설된 곳만도 10여개교 안팎에 이른다. 4년제 대학에 비해 짧은 2년이라는 기간이 교육성과의 저하와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불리한 여건 속에 처해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전문대 디자인학과와 경우도 그렇지만 출판학과도 출판의 전반적인 흐름 정도를 이해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어 북디자인 전문교육으로서의 자격은 미달인 셈이다. 이렇게 대학과 전문대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예비 북디자인어들과 대학을 거치지



출판이 지난 89년부터 운영해온 '출판대학'의 디자인 실습광경.

않고 북디자인에 입문하려는 지방생들이 모여 실무를 익히는 곳이 지난 몇년 사이 부지기수로 늘어난 편집학원과 디자인학원으로, 서울에만도 60여곳에 이른다.

그러나 여기서도 북디자인의 골자를 배우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편집학원에서는 말 그대로 기획·편집·교정·레이아웃 등과 같은 출판 편집의 전과정을 두루 가르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북디자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89년 인가를 얻어 문을 연 중앙편집학원의 정수백씨는 "학원에서의 재교육은 교육자나 피교육자나 취업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교육의 질적 완성도를 심화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6개월이나 1년 정도로 기간이 한정된 상태에서 북디자인에 현재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는 힘들다"고 그나마 인가도 받지 않은 무허가 학원들의 난립으로 선택의 조심이 요구되고 있다.

편집학원과 비교할 때 전문적인 강의가 수월한 곳이 디자인학원. 디자인에 국한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리라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유명 디자인학원이 북디자인에 적합한 과정을 둔 경우는 드물고, 이들과의 경쟁심리에서 출판디자인·편집디자인과를 개설한 신생학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것 역시 만족스러운 편에 속하진 않는다. 우선 학생수를 채우지 못해 휴강인 예가 많고, 전문강사를 확보하지 못해 다른 과목의 강사가 강의를 겸하는 게 보통이라고 한다.

4년제 대학, 전문대의 출판학과나 디자인학과, 편집·디자인학원을 찾는 북디자인어 지방생들의 발길을 따라가다보면, 결국 도달하는 곳은 현재 활약중인 북디자인어의 사무실. 다

시말해 교육기관을 통해 제대로 성과를 올리지 못한 이들이 비로소 북디자인의 맛을 보게 되는 곳이 실무현상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이렇게 전문인력교육 부재현상에 대해 정석원씨(EXPO조직위원회 책임 디자이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북디자인어 양성을 위한 전문적인 재교육 기관이나 대학의 커리큘럼 조정 등이 요구된다. 그런 과정을 거친 우수한 디자이너의 배출만이 정당한 원고료 보상과 책표지 제작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

짜임새 있는 재교육기관 필요 절실

살펴본 것처럼 북디자인의 갖가지 문제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교육에서 비롯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북디자인 전문 강좌가 진행되고 있는 유럽이나 일본의 예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대학과정에서의 북디자인 과목 개설이 불가능하다면, 공신력 있는 전문 재교육기관을 마련해 '붐'에 걸맞지 않는 북디자인어의 현실적 빈곤을 해결할 방법을 장기적 안목에서 서두르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는 김진평교수의 말처럼 몇몇 유명 디자이너들에게만 맡겨진 북디자인계를 교육과정의 재정비를 통해 활성화시켜야 한다. 시간과 투자가 힘겹더라도 이것이 "북디자인계가 한동안의 활기를 잃고 답보상태"라는 출판계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 최태원 기자